

# 韓國民謠學

——第1輯

韓國民謠學會 編

(株) 教文社

## 韓國 傳承童謠의 研究

— 유희 발달을 중심으로 —

左 惠 景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전승동요의 유형 및 내용 |
| 2. 전승동요의 종류 | (1) 발달지향의 노래     |
| (1) 前童謠期    | (2) 자연지향의 노래     |
| (2) 準童謠期    | (3) 생활지향의 노래     |
| (3) 童謠期     | (4) 사회지향의 노래     |

### 1. 머 리 말

전승동요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따른 유희발달과 함께 발전하고 변모해 나간다. 노래를 부를 수 없던 유아기에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 애무요를 듣고 즐겼으며, 차츰 성장해선 성인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자신들이 창작하여 부르면서 그들 나름의 세계를 펼쳤다. 이러한 노래들은 대부분의 유희와 동반하여 불려지고 있어서 유희요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는 그들의 삶의 일상이 유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전승동요의 연구는 문학적·음악적·사회적 측면에 따른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나, 동요의 실체를 민속문학의 측면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문학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초를 얻는 일로서, 아동문학과 민속문학 입장에서 동요의 위치는 기초적인 성인문학 또는 예술문학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승동요의 연구대상으로는 문헌에 존재하는 과거의 노래, 성인에게서 수집 가능한 노래, 어린이들의 유희와 함께 병행하여 부르는 노래 등으로 구분되나 이 모두를 넓은 의미의 동요의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자장가나 애무요 등은 창자의 연령이나 세대에 있어 동요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아동이 즐기고 감상한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포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는 전승동요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아동의 성장에 따른 유희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한 동요기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동요<sup>1)</sup>의 종류와 특성을 살핀 후 사실의 유형 및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 2. 전승동요의 종류

노래의 종류는 아동의 신체발달 또는 유희발달, 창자, 소재, 내용 등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요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확대했을 때, 아동발달 단계상 동요기를 명확히 구분지을 수는 없으나 대체로 다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첫째, 전 동요기로서, 어린이만으로는 창자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놀이의 협조자인 성인이 부르는 노래를 즐기고 느끼는 시기, 대체로 1~3살 정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언어기능이 차츰 발달해가면서 놀이와 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 이때는 노래와 언어동작이 결합된 상태로 나타나 동요기에 근접

1) 이하 동요는 전승동요를 총칭한다.

2) 柳岸津의 『韓國의 傳統育兒方式』(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에서는 유희발달의 단계를 아기놀이(1-3), 유아놀이(3-5), 미운 일곱살 아동놀이(5-7), 애어른기(7-13) 등 넷으로 구분하여 아동놀이의 발달 단계를 살피고 있으며 동요를 부르는 시기는 7-13, 즉 애어른기에 와서야 부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놀이와는 별개의 노래에 한해서 좁은 의미의 동요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준 동요기로서 보통 국민학교 입학하기 이전까지를 들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을 받게 되고, 거의 완전한 언어, 구사능력을 지닌 아동으로 성장하게 된다. 놀이와 노래가 분리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특히 성의 분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각 단계의 동요의 종류와 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 동요기(前童謠期)

이 단계의 유아는 직접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아직 운동능력이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이 시기의 동요는 성인 위주의 노래와 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휘감과 음악적인 리듬감을 키우고, 신체동작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 배워서 지각·감각 능력을 키우기도 한다.

이 시기의 노래와 놀이와의 관계를 표 1 처럼 나타낼 수 있다.

< 표 1 > 전 동요기의 노래와 놀이

| 유희요명  | 가 창 기 연                           | 놀이 형태                | 놀이 영역 및 목표                       |
|-------|-----------------------------------|----------------------|----------------------------------|
| 자 장 가 |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                      | 정서안정, 어휘능력신장                     |
| 애 무 요 | 우는 애를 달래기 위해서, 성인과 아기가 함께 즐기기 위해서 | 몸 흔들기, 안아주기, 업어주기    | 운동능력, 정서안정                       |
| 도리도리  | //                                | 목 흔들기                | 운동<br>손과 눈의 협응<br>정서<br>운동<br>운동 |
| 짹 짹   | //                                | 손바닥 치기               |                                  |
| 잼 잼   | //                                | 주먹 쥐고 퍼기             |                                  |
| 곤지곤지  | //                                | 손바닥에 점찍기             |                                  |
| 따로따로  | //                                | 따로 세우기               |                                  |
| 고네고네  | //                                |                      |                                  |
| 단지 팔기 | 배변을 가리기 위해서                       | 몸을 옆으로 누혀 허리에 끼고 돌리기 | 지적 정서                            |

놀이 형태는 유아와 상대자인 성인,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놀이도구나 다른 유희에 필요한 물건은 유희진행상 필요치 않다. 이 시기의 노래와 놀이에 관한 특징은 놀이와 노래의 주체는 성인이며, 유아는 감상자 또는 청자로 등장하지만 유아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놀이의 형태는 뚜렷하지 않고 지적·정서적 운동능력의 신장을 위한 놀이영역 및 목표가 되고 있는게 특징이기도 하다.

#### (2) 준 동요기(準童謠期)

전 동요기의 주된 놀이, 노래의 주체는 성인이었으나 차츰 어린이가 어휘능력을 익히게 되고 활동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역할 주도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또한 동요는 언어·동작·가락이 결합된 상태로 나타나 유희요로서 기능성이 뚜렷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만의 완전히 독립된 창자, 놀이자의 역할이 힘들고 성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이다.

사실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양성과 함께, 공식적인 문장서술, 내용단위의 확대, 발전으로 다소 성인의 구비문학적 성격에 접근함과 동시에 문학적인 기초가 바탕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실과 기능과의 관계는 동요가 놀이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말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놀이의 성격을 나타내거나, 비록 놀이와 병행하고는 있지만 사실내용은 놀이와 무관하게 단지 개인의 정서만 표출되는 등 복잡해지고 있다.

표 2는 준 동요기의 놀이와 노래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는 대부분 신체의 운동능력과 감각기능의 발달로 인하여 유희 형태가 복잡해짐과 함께 자신들만으로도 행할 수 있는 놀이나 노래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같은 또래 집단을 통하여 사회성과 규칙을 익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양육의 특징을 지닌 놀이와 노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지케 한다. 그리고 언어발달과 함께 어휘력 신장을 위한 노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이 소

재로 등장하고, 이유와 함께 대리적 모성으로 등장한 형, 누나와 어울리며 정신적인 성숙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lt;표 2&gt; 준 동요기의 노래와 놀이

| 유희요명  | 가창기연                                      | 놀이형태                          | 놀이영역 및 형태               | 창자 (놀이자)     | 인원수       |
|-------|-------------------------------------------|-------------------------------|-------------------------|--------------|-----------|
| 연모요   | 외출한 어머니를 기다리며, 우는 애를 달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면서 | 업어주기, 안아주기, 얼러주기              | 정서안정, 지적 능력신장, 어휘력 신장   | 성인 또는 아동(손위) | 2인        |
| 원님놀이요 | 놀이 진행을 위해서                                | 다리 뻗고 수 세기                    | 규칙 알기, 사회성 기르기          | 성인, 아동       | 2인 이상     |
| 집짓기요  | 놀이 진행을 위해서                                | 모래, 흙으로 집짓기                   | 손감각 기르기                 | 아동           | 단독, 2인 이상 |
| 약손이요  | 눈에 티가 들었을 때, 배 아플 때, 이가 빠졌을 때             | 물로 씻기, 배 쓸기, 빠진 이를 지붕 위로 던지면서 |                         | 성인           | 2인        |
| 어희요   | 별을 세면서, 글자공부하면서                           | 수 세기, 한숨에 외기, 수수께끼, 한글공부      | 지적 능력신장, 어휘력 신장, 연상력 신장 | 성인, 아동       | 단독, 2인 이상 |
| 오줌싸개요 | 배변훈련을 하면서                                 | 꼬부랑 할머니 유희하기                  | 인지능력, 배변 훈련             | 성인           | 2인        |
| 소꿉놀이요 | 풀가지 만들기 하면서, 놀이진행을 위해서                    | 풀로 가지 만들기, 손님맞이 하기            | 협동, 사회성                 | 아동           | 2인 이상     |
| 뽀뽀기요  | 놀이진행                                      | 외발뛰기, 양발뛰기                    | 신체단련                    | 아동           | 단독, 2인 이상 |
| 맴돌기요  | 놀이진행                                      | 빙빙돌기                          | 신체단련                    | 아동           | 2인 이상     |

|       |           |                                         |               |        |       |
|-------|-----------|-----------------------------------------|---------------|--------|-------|
| 죽마타기요 | 말타기놀이 하면서 | 하목마타기, 등타기                              | 운동, 모험성, 신체단련 | 아동     | 2인 이상 |
| 어깨동무요 | 놀이진행      | 서로 어깨를 걸고서 하기, 서로 손을 잡고 하기,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 사회성, 신체단련     | 아동     | 집단    |
| 귀잡기요  | 놀이진행      | 귀를 잡고서 눈을 손바닥으로 막아서 알아맞추기               | 인지감각          | 성인, 아동 | 2인 이상 |

### (3) 동요기(童謠期)

준 동요기까지는 놀이와 노래의 주체는 성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동기에 들어서면서 놀이의 형태가 상당히 세분화됨과 동시에 동요 역시 세련되어가기 시작한다. 성을 구별하게 되고, 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성이 생기게 되며, 접하는 물건을 놀이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함으로써 놀이나 노래가 당당히 자신들의 소유물로서 여기며 주체자가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와서는 역시 동요가 놀이와 분화되고 있는데 놀이와 병행해서 불리어지는 유희요와 단지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를 노래한 서정성을 지닌 동요로 나누어지게 된다. 즉 전자가 유희한다는 기능성을 지닌데 반해서 후자는 비기능요적인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서가 표출된 노래들은 비록 유희요에서 파생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소나마 예술문학적 또는 성인문학적 차원에 접근됨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유희요는 집단놀이와 함께 병행하는 적극성을 지닌 집단유희요와 자연물을 가지고 놀거나 쳐다보면서 노래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부르는 소극성을 지닌 개인 유희요로 나누어진다. 유희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성인놀이가 차용되어 행해짐을 알 수 있다.

〈표 3〉 동요기의 놀이와 노래

|                       | 유 회 명 | 놀 이 형 태                                                                                                                         | 놀이의 성격            | 장 소                   | 성별                          | 사철                                    | 도 구            |
|-----------------------|-------|---------------------------------------------------------------------------------------------------------------------------------|-------------------|-----------------------|-----------------------------|---------------------------------------|----------------|
| 집                     | 술래잡기  | 가위 바위 보(손발), 술래잡기,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 술래 정하기, 놀이진행      | 실외                    | 남녀                          | 사철                                    |                |
|                       | 줄넘기   | 1인뛰기, 2인뛰기, 차례뛰기, 제스처 뛰기, 문답뛰기                                                                                                  | 놀이진행, 사회반영        | 실외                    | 여                           |                                       | 줄, 고무줄         |
|                       | 행렬놀이  | 수박놀이, 호박놀이, 동배때기                                                                                                                | 놀이과정, 진행          |                       | 남녀                          |                                       |                |
| 단                     | 찾기놀이  | 물건찾기, 식물찾기, 밤놀이                                                                                                                 | 놀이성격              |                       |                             |                                       | 자연물            |
|                       | 대문열기  | 외하르방놀이, 군사놀이, 달구잡이, 도둑놀이                                                                                                        | 놀이진행, 놀이성격        |                       | 남녀                          |                                       |                |
| 유                     | 그림그리기 | 숫자쓰기, 글자쓰기, 사물의 형그리기                                                                                                            | 놀이진행              | 실내                    | 남녀                          |                                       | 종이, 연필         |
|                       | 신체유희  | 손바닥치기, 얼굴유희, 기타 유희                                                                                                              | 놀이자의 심정, 놀이진행     |                       | 여                           |                                       |                |
| 회                     | 가마태우기 | 말타기, 가마타기                                                                                                                       | 놀이성격              | 실내외                   | 남                           |                                       |                |
|                       | 민속놀이  | 강강수월래, 그네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돛다리밟기, 기와밟기, 장기, 골패                                                                                     | 놀이자의 심정           | 실외<br>실내외<br>실외<br>실내 | 여<br>여<br>남녀<br>여<br>여<br>남 | 가을<br>봄<br>겨울<br>겨울<br>가을<br>겨울<br>겨울 | 윷연<br>장기<br>골패 |
| 개<br>인<br>유<br>회<br>요 | 동물    | 개똥벌레를 가지고 놀며, 풍뎡이를 가지고 놀며, 방아깨비를 가지고 놀며, 계를 구우면서 또는 잡으면서, 잠자리, 메뚜기, 매미 등을 잡으면서, 달팽이 집속에서 나오게, 미꾸리 잡아 찢으면서, 게나 가재수염을 잡고 거품을 내우면서 | 놀이자의 심정<br>놀이의 진행 | 실외                    | 남녀                          | 여름                                    | 곤충들            |
|                       | 식물    | 보리피리 만들기, 색시풀, 쇠비름뿌리 두드리기, 풀각시 만들기, 실거리 나뭇잎 따기                                                                                  | 놀이자의 심정           |                       | 남녀<br>여<br>남                | 여름                                    | 식물             |
|                       | 천체기상  | 달 별 해를 보면서, 바람 비를 노래                                                                                                            | 놀이자의 심정           | 실내외                   |                             |                                       |                |

이 단계에서는 놀이와 함께 불려지는 유희요와 단순한 노래로만 불리는 동요들을 나누어서 살핌이 타당할 것이다.

동요기의 놀이와 함께 병행하여 불려지는 동요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처럼 집단유희요에서는 놀이의 진행, 또는 놀이의 과정과 함께 놀이자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행위에 규칙이 따르고 있어서 규칙준수와 사회성 함양에 필요한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물, 식물, 또는 천체기상을 제재로 하여, 자연물에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노래들은 개인적이며 소수 인원내에 의해서 놀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요기를 셋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나타나는 동요를 유희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결국 동요는 유희의 발달과 더불어 여러 종류로 분화되고 세련되며 발전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3. 전승동요의 유형과 내용

동요의 사설에 나타나는 유형과 내용은 문학적 연구의 기초 단계로서 분석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인이 부른 자장가나 애무요 또는 사모요 등을 제외한 노래들은 어린이들이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노래라고 의식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인다. 즉 유희 중에 따른 유희 도구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으로서 인식하고, 자연적으로 우러나온 소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희요는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자연의 소리인 것이다.

동요의 사설은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린이들 지향의 세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동요의 사설에 나타나는 지향성을 분석하고 그 유형들을 살핌으로써 동요의 실체를 밝히는 데 더욱 가깝게 접근하고자 한다.

## (1) 발달지향의 노래

발달지향의 노래는 신체발달, 운동, 감각능력의 발달을 위한 것으로서 양육의 성격을 지닌 노래들이다.

대부분 동요기에 속한 노래들이며 아기들에게 불러줄 수 있는 성인의 노래이기도 하다.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어서 시각훈련 및 목운동을 시킨다든가 또는 손과 눈의 협응을 위한 손 주먹 쥐고 펴기, 손뼉치기와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위한 노래 등이 있다.

- ① 도리도리 도리도리
- ② 뽀뽀 뽀뽀
- ③ 짹짹 짹짹
- ④ 곤지곤지 곤지곤지
- ⑤ 고네고네 고네고네
- ⑥ 단지사요 똥단지요
- ⑦ 꽃사세요 장미꽃요

위의 노래들은 대체로 같은 음이 반복되고 있으며, 동일한 리듬, 어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유럽 각국의 유아들이 부르고 있는 동요에서도, 3세 이하의 어린 유아가 처음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는 대체로 똑같은 음으로써 반복하는 노래이거나, 또는 단 3도보다 작은 2도 선율로 구성되고 있다. 3세가 되면 어린이들은 2도의 음정을 갖는 2음 선율이나 3음 선율까지 부르게 된다. 3세 반의 어린이는 하행형의 데트라코트를 노래한다. 유일한 형식은 몇번이고 되풀이한다는 것이다.<sup>3)</sup>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달을 향한 노래들은 의미없는 사설의 동일음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인간 초기의 개체 생성 과정에 있어서 재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

3) Curt Sachs, *The Rise of the Music in Ancient World East and West* I, 삼호출판사, 편집부 역, p.56.

며, 일종의 원시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소리형태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 조금 진전된 형태의 노래들도 정서적·지적 기능발달을 위한 수혜아리기 놀이, 글자익히기, 또한 단지팔기의 배변훈련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는 꼬부랑할머니 등이 있다. 또 아동기에 발달 과업으로서 반드시 이갈기에 관한 동요가 있다.

- ⑧ 가가 가다가  
거거 걸어서  
고교 고기잡아  
구구 국끓여서  
나냐 나하고  
너너 너하고  
노노 노나먹지<sup>4)</sup> (禮山地方)

- ⑨ 한 다리 인다리  
거청개 지너 요문  
보문개 오오장장  
꼬노꼬노 도라  
돌감밭의 새평 (濟州地方)

- ⑩ 앞니빠진 노장군  
웃니빠진 갈강새  
뒷넋가에 가지마라  
가재새끼 놀랜다  
앞니빠진 노장군  
뒷니빠진 갈강새  
앞넋가에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랜다<sup>5)</sup> (禮山地方)

4) 任東權, 『韓國民謠集 I』, 1889의 자료.

5) 任東權, 앞의 책 1713의 자료.

## ⑪ 까치야 까치야

헌니 줄께

새니 다오(濟州地方)

## ⑫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팽이 짚고

꼬부랑 고개를

꼬부랑 뚝이마러

꼬부랑 뒷간에

꼬부랑 똥을누어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깽 꼬부랑깽 (전국)

이밖에 자장가나 애무요 역시 발달지향의 노래에 속할 수 있으나, 제재나 내용면에서 생활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생활지향의 노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 (2) 자연지향의 노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의 아동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함께 지내며, 자연물을 채취하여 만지거나 놀이를 하면서 지냈다.

천체기상이나 동식물의 상태가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노래한다거나, 또는 유희 중에 도구로서 취하는 것이다. 전자는 자연물에 대하여 소극성을 띄며 정지적인 편인 데 반해 후자는 적극성을 지니고 활동적인 편이다.<sup>6)</sup>

6) 小泉文夫:『日本童謠의 研究』(研究篇), おらべうた刊行會, 1969, 재인용.  
志田義秀는 동요를 活動遊戲唄와 靜止의 遊戲唄로 분류하고 있다.

## ① 活動的 遊戲唄

· 鞠歌

· 羽子노래

· 자장가

· 기타 유희노래

## ② 靜止的 遊戲唄

· 天文에 관한 노래

· 동물에 관한 노래

· 기타 유희노래

이는 동요를 유희요라는 관점에서 본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유희요인 경우 적용 가능의 타당성을 띤다.

동요의 소재로서 등장하는 자연물은 수없이 많다. 천체 또는 기상에 관한 것들이나 또는 짐승, 곤충, 새, 어류 등의 움직이는 동물, 나뭇잎이 라든가 꽃, 풀, 과수와 같은 여러 식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제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래에는 어린이들의 자연에 대한 느낌 또는 자연에 대한 정서가 표출되어 자연에의 지향성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각되는 것으로서 동요 속에 내재화된 자연물에 대한 아동의 의식 또는 사고는 자연물의 의미변화 과정에서 드러난다. 즉 자주 접하게 되는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로 취하여 자신들의 이해수준 및 정서의 한계 내에서 그 의미를 전이시키고 있고, 경험의 양상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후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자연에 부과시키는 규제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그 주된 원리는 전이성 또는 적합성과 일치성, 일관성을 지닌다.<sup>7)</sup>

비록 자유연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을지언정 나타난 의미는 보편성을 띠고 있고 관용적이기조차 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     |       |                            |
|-----|-------|----------------------------|
| 가마귀 | 검다    | (任III, 1759) <sup>8)</sup> |
|     | 높이날다  | ( // , 1760)               |
|     | 보은    | ( // , 1622)               |
|     | 홍조·죽음 | ( // , 1305)               |
| 파랑새 | 민중    | (任 I , 참요 151.153)         |
|     | 전봉준   | (任III, 1436)               |
|     | 넋·영혼  | (任 I , 1338)               |
| 두꺼비 | 탐관오리  | (任 I , 1438)               |
| 종달새 | 양반    | ( // , 1351-52)            |

7) 沈明鎬 譯, Terence Hawkes 著, 『隱喻(Metaphor)』,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29.

8) 任東權, 『韓國民謠集 III』 1759 번의 자료를 일컬음.

|     |       |              |
|-----|-------|--------------|
| 빼꼭새 | 홀아비   | ( // , 1360) |
| 호박꽃 | 추녀    | (任III, 1513) |
|     | 춧불    | (任 I, 1492)  |
| 백일홍 | 만수무강  | ( // , 1525) |
| 국 화 | 지조    | ( // , 1525) |
| 하 늘 | 저승    | (任III, 1569) |
|     | 높은 벼슬 | ( // , 1583) |
|     | 천상국   | (任 I, 1661)  |
| 달   | 거울    | ( // , 1667) |
| 초생달 | 눈썹    | ( // , 1667) |
|     | 허리    | ( // , 1667) |
| 구 름 | 수심    | (任III, 1650) |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의미의 변화 요인으로는 자연물의 상태의 유사점을 차용하거나, 또는 자연물을 추상화시키는 변화 과정을 겪는가 하면, 의미를 축소화 또는 확대하여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진 산물이다. 이는 아이들의 사고과정의 결과라고 여길 때 수사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자연물이 제재화된 노래들이 동요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더한 연구의 가능성으로는 성인 어휘와의 비교, 또한 다른 나라 동요에 나타난 자연물의 의미변화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아동의 지향적 사고의 추출 가능성과 함께 동요의 의미론적 연구 가능성이 엿보인다.

자연을 제재로 한 노래의 예를 보면, 서정을 노래한 것 외에도 경이감, 신비감으로 인한 주술적인 노래와, 미래를 예언한 참요들도 자연물을 제재로 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⑬ 잠자리      불어라  
         불는데      불어라

멀리가면      네죽는다  
통시구녕에      밥주께  
불는데      불어라<sup>9)</sup> (南海地方)

- ⑭ 물자라      물자라      譯: 잠자리야      잠자리야  
         앓아라      앓아라      앓아라      앓아라  
         안앓으면      다투집이      앓지안으면      너희집에  
         불캐와      부키여<sup>10)</sup> (濟州地方)      불태워      버린다.

- ⑮ 비야비야      오는비야  
         평의길로      가거라  
         토끼길로      가거라  
         까치길로      가거라  
         우리오빠      장에가서  
         소곰하고      저고리감하고  
         사가지고      돌아올때  
         비때문에      못온단다.<sup>11)</sup> (安東地方)

- ⑯ 장다리는      한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이라

- ⑰ 아랫녘새야      옷녘새야  
         전주고부      녹두새야  
         녹두밭에      앓지마라  
         두루박      딱딱우여<sup>12)</sup>

위 동요들은 자연을 향해 노래를 하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변화가 오리라는 확신이 담겨있는 노래들로 어린이들의 주술적인 가요관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아동의 사고가 성인보다 훨씬 더 자연계

9) 김소운, 『조선구전민요집』 1305의 자료.

10) 필자 채록, 제주도 표선읍 성읍리, 1982.6. 김진두(남, 12).

11) 任東權, 『한국민요집』 1634의 자료.

12) 김소운, 앞의 책, 287의 자료.

에 대한 외경심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⑬, ⑭는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이나 다른 곤충을 잡을 때도 비슷한 유형의 사실이 전개된다. ⑬의 노래는 호칭-명령-가정-의지의 4 단 구성을 취하여 구지가와 유형이 비슷하다. 즉

|     |         |
|-----|---------|
| 거북아 | 거북아     |
| 머리를 | 내놓아라    |
| 만약  | 내놓지 않으면 |
| 구워서 | 먹겠다     |

두 노래는 동일한 유형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해라”하는 적극적 주술형태이다. ⑮ 역시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면서 부르는 주술적인 노래라 할 수 있는데, 어휘는 명령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呪言은 비록 가락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대상 또는 신, 인간과 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매체로 연상력(Associative Power)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자연에 대한 모든 사상을 신비적인 주력의 활동에 귀납시키는 것은 원시인의 논리와 상통하며, 이러한 논리는 반논리적(antilogue)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논리적(prelogue)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논리적 사고의 제일 요건인 모순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일이다.<sup>13)</sup>

⑯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암유하여 부른 노래로서 사시사철 푸른 미나리, 즉 민비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전조로 들어내 보인 노래라 할 수 있다. 민심은 천심임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으며 그 대상물로서 차용된 것은 자연물이라는 데 더욱 의미가 깊다.

⑰ 역시 동학혁명을 예언하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패할 것을 예언한 참요이다. 노래에서 “새”라 함은 민중을 가리키며 두류박은 전주 고부에 있는 두류산을 가리켰고 “녹두새”는 전봉준을 뜻하였으며 키가 왜소

했으니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딱딱우여”는 날아가라 또는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4)</sup>

이처럼 동요는 아동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기교와 수식없이 사실을 노래하는 동안 이러한 참요가 생기게 되고 특히 이러한 노래들은 자연물에서 그 발상을 얻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자연지향의 노래들은 유희와 함께 정서를 노래하는가 하면 주술성을 띤 노래와 참요와 같은 원시성을 지닌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생활지향의 노래

전승동요는 아동의 유희에 수반되어 불리는 유희요가 대부분이지만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등의 온갖 감정을 묘사하여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것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노래들은 보통 생활하는 과정에서 표출하는 개인의 감정 또는 접하는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모요나 가족요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성인이 불러주는 자장가나 애무요 등에서는 아동의 정서를 대신해서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의 주된 상황적인 특징은 이유의 시기 및 동생을 맞게 되는 시기로서 형, 누나 또는 조모 등이 대리모성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차차 모성의 품속에서 멀어져가야만 하므로 어린이의 모성이탈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인 변화를 겪어야 하고 또는 삶의 희비를 맛보면서 노래한 것들을 생활지향의 노래의 범주에서 다루고자 한다.

자장가는 아동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래이다. 아기를 키우고 재우는 데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혹은 창자의 심리상태와 부르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소 내용의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 때로는 성인이 아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 등이 묘사되기는 하나 아기를 재우고 달래기 위한 기능으로 인하여 생활에 대한 지향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13) 林基中, 『新羅歌謠에 나타난 呪力觀』, 『東岳語文論集 제 5 집』, p 68.

14) 任東權, 앞의 책 I, p.594 참요 150 항의 자료.

사설은 자장 “자랑, 똥이 자랑”의 어휘반복 및 동일 리듬의 반복과 함께 핵심적 개념 요소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아기들이 들어서 즐길 수 있으며, 어휘역시 알기 쉽게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장가의 여러 각편(Versions)에 산재해 있는 공식적 표현구<sup>15)</sup>로 이루어진 핵심적 개념이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형 요소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T<sub>1</sub> 예쁜 애기 잘도 잔다.  
 T<sub>2</sub> 남의 아진 잠못자서 울고 있다.  
 T<sub>3</sub> 동물들이 잠을 잔다.  
 T<sub>4</sub> 금동개(검둥개)에게 재워주도록 위협한다.  
 T<sub>5</sub> 금자동이, 옥자동이, 충성동이를 소망  
 T<sub>6</sub> 유기재물, 전답 등의 재산을 물려줄 것을 약속

이러한 핵심적 개념이 내포된 자장가를 전형적인 자장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지역마다 그 지역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지역적인 노래들도 있다.

- ⑬ 자랑자랑 똥이자랑  
 우리애긴 착한애기  
 우리애긴 잘두잔다  
 앞집애긴 못난애기  
 앵앵앵 우는애기  
 우리애긴 잘두잔다  
 저레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채와도라  
 놈의애긴 고추먹고

- 우리애긴 곤밥먹잉  
 착한애기 잘도잔다  
 똥이자랑 자랑자랑  
 우리애긴 효자동아  
 일가에는 화목동아  
 동네에는 삼제동아  
 나라에는 충성동아  
 비자낭엔 비자동아  
 옥저낭엔 옥자동아  
 가시전답 너물리마  
 유기재물 너물리마  
 똥이자랑 똥이자랑  
 앓힌솔도 너물리마  
 정근살래 너물리마  
 싱근물항 너물리마<sup>16)</sup> (濟州地方)

이 노래는 전형성을 지닌 유형과 지방의 지역적 색깔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점이 그 특징이다. 남의 아기와 대조하여 동류의식과 함께 경쟁 의식을 느끼게 하고, 자지 않는 아기를 위협하기 위하여 검둥개를 차용 하며, 또한 “잠재운다”는 기능성과 함께 성인이 아기에게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애무요와 사모요인데 이 노래들은 보통 부재한 어머니를 기다리거나, 대리모성으로 나타난 조모와의 관계(rapport) 형성을 위해서 부른다. 설화적인 색채가 강한 노래들이며 각편들이 모여 서사적인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애무요에는 “달강달강” “불무 불무” “둥게둥게” “업어줘도 껌껌”과 같은 유형의 노래가 있다.

- ⑭ 세상세상 서울로

15)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New York : Atheneum, 1978 : originally publish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16) 필자 채록,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 1986, 이금윤(여, 56).

불불이러 갔다가  
다리목에 짚단하나드니  
밤이 한톨 있거늘  
통노구에 삶아서  
조-리로 건져서  
산태미로 담아서  
고무락에 짓니렀더니  
머리감은 수양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다만한톨 남았거든  
껍테기는 아비주고  
보물이는 어미주고  
알은 너하고나하고  
단둘이서 논아먹자  
달강 달강<sup>17)</sup> (橫城地方)

㉔ 다박다박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니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러 나는가요<sup>18)</sup> (扶安地方)

산이높아 못간단다  
물이깊어 못간단다  
산높으면 넘어가고  
물깊으면 헤어가지

---중 략---

낮이면 해를따라  
밤이면 달을따라

내어머니 무덤앞에  
어덕지덕 다다라서  
짬외뜯어 분장하고  
눈물흘려 제치내고  
목을놓아 울어봐도  
우리엄마 말이없다  
내어머님 무덤앞에  
데령참외 열렸고나  
한개따서 맛을보니  
우리엄마 젓맛이라<sup>19)</sup> (龍岡地方)

위의 노래에는 모성에 대한 적의가 승화되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밤알을 자신들만이 먹는다거나, 만날 수 없는 어머니대신 참외를 따먹음으로써 욕구좌절(frustration)을 보상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에서는 정신적 평형상태에 이르기 위한 적응 과정(process of adjustment)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려는 인간 본능적 노력의 과정과 아동의 성숙되는 모습이 잘 나타난 노래로, 자신들의 일상을 솔직한 심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 노래들은 심리적 치료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족간의 질시, 애정을 노래한 것으로 계모요·형제자매요·부모요 등이 있다.<sup>20)</sup>

#### (4) 사회지향의 노래

어린이들은 성인들에 비하여 사회적인 영향에 덜 민감한 편이지만 다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적인 꿈과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다가도 사회를 비꼬고 풍자하며, 사회참여의 현실성이 강한 노래를 불렀

17) 김소운, 앞의 책, 1915 번의 자료.

18) 任東權, 앞의 책 II, 1556 번의 자료.

19) ———, 앞의 책 II, 1552 번의 자료.

20) 줄고, “韓國傳承童謠研究—家族謠를 中心으로—”, 국문학보, 제 8 집,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1986, pp.58-73.

던 것이다.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전승동요 중 참요는 현실을 비판하고 예언하는 비판적 리얼리즘이 동요의 주된 기능이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진정한 동요문학의 주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채록의 이유가 이 참요적 비판기능을 지녔기 때문인지가 구명되지 않는 한 고전 동요문학이 비판적 리얼리즘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였던 장르라는 속단은 타당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sup>21)</sup> 또한 이러한 비판적인 것은 전승되는 노래 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짐승의 삶을 노래하거나, 동물의 생김새를 보고 연상하여 의인화시키는 방법으로 풍자하는 노래들이 있다. 특히 이러한 노래들은 자신의 삶을 동물이나 자연에 투영하여, 서민들이 강자에게 받는 설움과 한을 신세타령으로 부르고 있다.

高晶玉은 이처럼 짐승을 의인해서 자기의 처지를 자탄하는 신세타령, 이것이 짐승을 노래한 본령이라 보았다.<sup>22)</sup>

노래의 창작자는 반드시 아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성인들이 창작해 주었거나 또는 성인이 부르는 것을 본따 불렀을 가능성도 많다.

이러한 사회지향의 노래에는 가렴주구에 우는 서민의 심정을 노래한 사슴타령, 또는 노예적인 순종성을 노래한 소타령, 세상 찬바람에 민감한 상민의 심정을 노래한 제비타령, 양반 관료의 비행을 풍자한 두껍타령이 있다.

|        |      |
|--------|------|
| ②1 두껍아 | 두껍아  |
| 네등이    | 와그렇노 |
| 전라감사   | 살적에  |
| 기생첩을   | 많이해서 |
| 청이올라   | 그렇다  |

21) 任軒永, 「리얼리즘과 兒童文學」, 『作家技術論』(兒童文學思想), 서울 寶晉齋, 1970, p.29.

22)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p.150.

|       |                            |
|-------|----------------------------|
| 두껍아   | 두껍아                        |
| 네손바닥이 | 와그렇노                       |
| 전라감사  | 살적에                        |
| 장기바둑  | 많이뒤서                       |
| 못이백허  | 그렇다                        |
| 두껍아   | 두껍아                        |
| 네눈이   | 와그렇노                       |
| 전라감사  | 살적에                        |
| 울군불군  | 많이먹고                       |
| 붉힌눈이  | 남아있네 <sup>23)</sup> (慶州地方) |

|         |                            |
|---------|----------------------------|
| ②2 이리치고 | 저리치고                       |
| 한강그물    | 고기잡아라                      |
| 먹어치고    |                            |
| 양반은     | 상놈치고                       |
| 상놈은     | 기집치고                       |
| 기집은     | 개불러다똥치고                    |
| 개는      | 꼬리치고 <sup>24)</sup> (牙山地方) |

|        |     |            |
|--------|-----|------------|
| ②3 바람아 | 바람아 | 불어라        |
| 대추야    | 대추야 | 떨어져라       |
| 애들아    | 애들아 | 주어라        |
| 어른아    | 어른아 | 뺏어라        |
| 애들아    | 애들아 | 울어라 (濟州地方) |

|          |       |           |         |
|----------|-------|-----------|---------|
| ②4 돈으신놈이 | 돈이신추록 | 譯: 돈없는 놈이 | 돈있는 것처럼 |
| 개가죽      | 구두에   | 개가죽       | 구두와     |
| 세비루양복    | 넥구다이  | 세비루양복     | 넥타이     |
| 메가네      | 벨르곡   | 안경        | 끼고      |

23) 任東權, 앞의 책 I, 1438의 자료.

24) ———, 앞의 책 I, 1817의 자료.

|         |                            |         |       |
|---------|----------------------------|---------|-------|
| 일본대판    | 둥그러가난                      | 일본대판    | 건너가니  |
| 쇄대加里    | 대加里                        | 소머리     | 말머리   |
| 다붙어     | 버렸저 <sup>25)</sup> (濟州地方)  | 다붙어     | 버렸네   |
| ②⑤ 일본놈이 | 능금의집이                      | 譯: 일본놈이 | 능금의집에 |
| 밋 레     | 갓나                         | 무엇하러    | 갔나    |
| 새끼치레    | 갓다                         | 새끼치러    | 갔다    |
| 멧마리     | 쳤나                         | 멧마리     | 쳤나    |
| 두머리     | 쳤다                         | 두마리     | 쳤다    |
| 보까먹고    | 다까먹고 <sup>26)</sup> (濟州地方) | 볶아먹고    | 닭아먹고  |

②①, ②② 둘 다 양반을 풍자하고 있으나 전자는 우화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훨씬 더 높은 문학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짐승타령의 우화적 수법은 우화소설로의 변형을 향하여, 동요의 단순한 형태에서 서사적인 형태로, 그리고 소설 구조의 형태로 발전하는 유형도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주지방의 꿩노래에서는 인물과 사건이 있어서 스토리 전개가 뚜렷한 서사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살필 수 있다.

②③, ②④ 성인을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잘 갖추어진 외양의 천박함과 허함을 비꼬고 있다.

②④는 참요적 성격을 띤 노래이다. 창자는 동요의 구연을 청하자 일본놈이 쳐들어오려 하니 동네 아이들이 여기저기 모여들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나름대로 참요의 성격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인간이나 시대, 사회비리 등을 비꼬고 공격하는 노래가 사회지향의 주가 되고 있으며, 우행, 악행 등을 조롱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풍자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아동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동요에 나타나는 내용 및 유형분류를 분석하고 예요를 분석해 보았다.

25) 필자 채록,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읍 신흥리, 1982.6. 오문복(남, 42).

26) 필자 채록,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리, 1986.6. 김인랑(여, 92).

원래 동요는 형식이 단순하고 내용이 풍부하게 전개되지 않아서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곳의 집중적인 조사와 동요 방법론의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학적 가치로서의 동요의 위치는 더욱 선명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 음 말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요는 넓은 개념으로 다루었을 때 아동이 태어나서 국민학교 학동기를 마칠 때까지 접할 수 있는 모든 노래를 총칭한다.

둘째, 아동의 유희발달 단계상 동요기는 셋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단계마다 그 종류가 다양하고 특징을 지닌다.

셋째, 동요의 사설은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아이들 지향의 세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sup>1</sup> 즉, 신체, 운동, 감각, 지적 능력의 발달과업을 위한 발달지향의 양육적 성격을 띤 노래, 자연을 제재로 하여 자연에 대한 경이감과 신비감 및 주술적 사고 등을 노래한 자연지향성의 노래, 생활상에 접하면서 느끼는 인간사에 관한 초보적인 감정 및 개인의 정서를 표출한 생활지향의 노래,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의 다소 현실성이 강한 사회지향의 노래 등으로 살필 수 있다.

전승동요의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학의 원초적 형태로서, 인간의 가장 초보적 정서로서 표현된 동요는 그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전승되고 있는 동요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그 위상을 정립하고 민속문학 연구에 이바지하는 일은 무엇보다 의미가 깊다.

동요연구의 과제는 문학적 측면의 연구로서 우선 작품에 나타나는 문학적 가치를 해명하고, 기록문학과 기타 민속문학 장르와 연관시켜 연구가 행해져야 하고 또한 민속적인 측면의 연구, 음악적 연구가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지역,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동요와의 비교고찰도 동요의 정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